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9년 7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5% 증가(전월대비 1.2%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1.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1.8%), 기계장비(-4.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4.1%), 기타 운송장비(26.3%)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전월대비 2.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2.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6.8%), 금융·보험(3.5%)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전월대비 1.0% 증가).

#### ◆ 2019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1.3%)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3.4%),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전월대비 0.9%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6%) 및 선박 등 운송장비(-1.8%)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함(전월대비 2.1%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3.3% 감소함.

◆ 2019년 7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감소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감소함.

◆ 2019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보합(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 2019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6(2015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함(전월대비 0.3%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음식·숙박(1.7%), 주택·수도·전기·연료(1.2%), 교육(1.0%), 기타 상품·서비스(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 보건(0.9%), 주류·담배(0.8%)는 상승하였고, 의류·신발은 변동 없으며 오락·문화(-0.2%), 통신(-2.2%), 교통(-1.9%), 식료품·비주류음료(-3.3%)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이외(-0.0%), 식품(-1.0%)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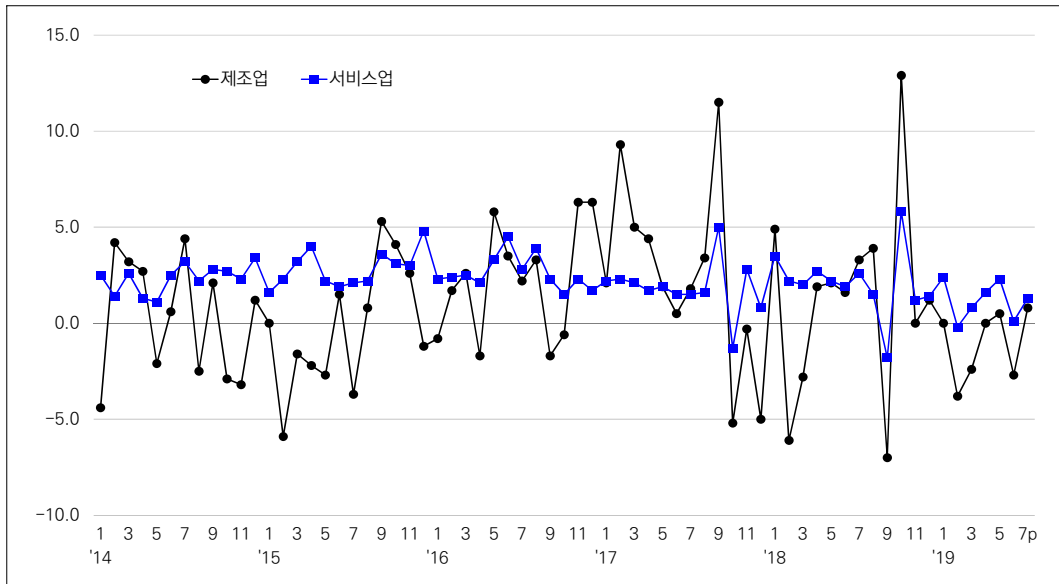
		연간			2018				2019		월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2018		2019
											7월	6월p	7월p
생산	전산업	3.0	2.5	1.4	1.1	1.8	-0.1	2.6	-0.6	0.4	1.0	-0.8(-0.6)	0.5( 1.2)
	광공업	2.2	2.4	1.3	-1.1	2.0	0.1	4.3	-2.1	-0.7	1.9	-2.6( 0.1)	0.6( 2.6)
	제조업	2.3	2.2	1.2	-1.4	1.9	-0.1	4.6	-2.1	-0.7	1.6	-2.7( 0.2)	0.8( 2.6)
	건설업	15.4	10.5	-5.3	0.8	-3.5	-9.7	-7.9	-9.5	-6.5	-6.3	-4.4( 1.2)	-6.2(-2.3)
	서비스업	2.6	1.9	2.1	2.5	2.2	0.8	2.7	1.1	1.4	1.9	0.1(-1.1)	1.3( 1.0)
소비	소비재 판매	3.9	1.9	4.3	5.3	5.0	3.8	3.0	1.7	2.0	4.3	1.2(-1.6)	-0.3(-0.9)
투자	설비투자	1.9	14.5	-3.5	10.2	-4.8	-13.5	-6.0	-19.6	-8.7	-12.2	-9.0( 0.4)	-4.7( 2.1)
물가		1.0	1.9	1.5	1.1	1.5	1.6	1.8	0.6	0.7	1.1	0.6(-0.3)	0.0( 0.2)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6년, 2017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8년 8월, 2019년 7월, 8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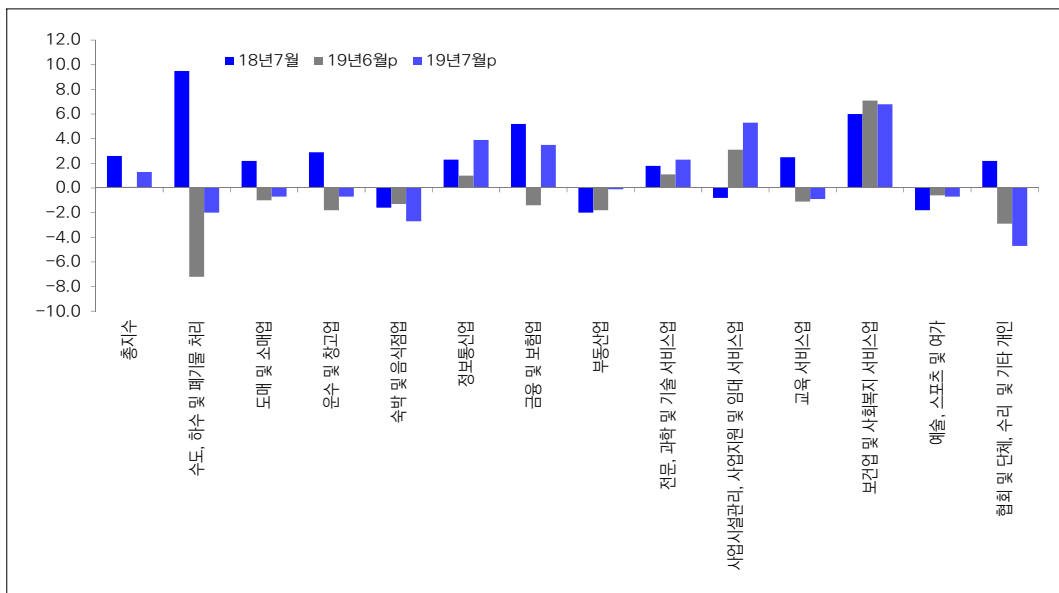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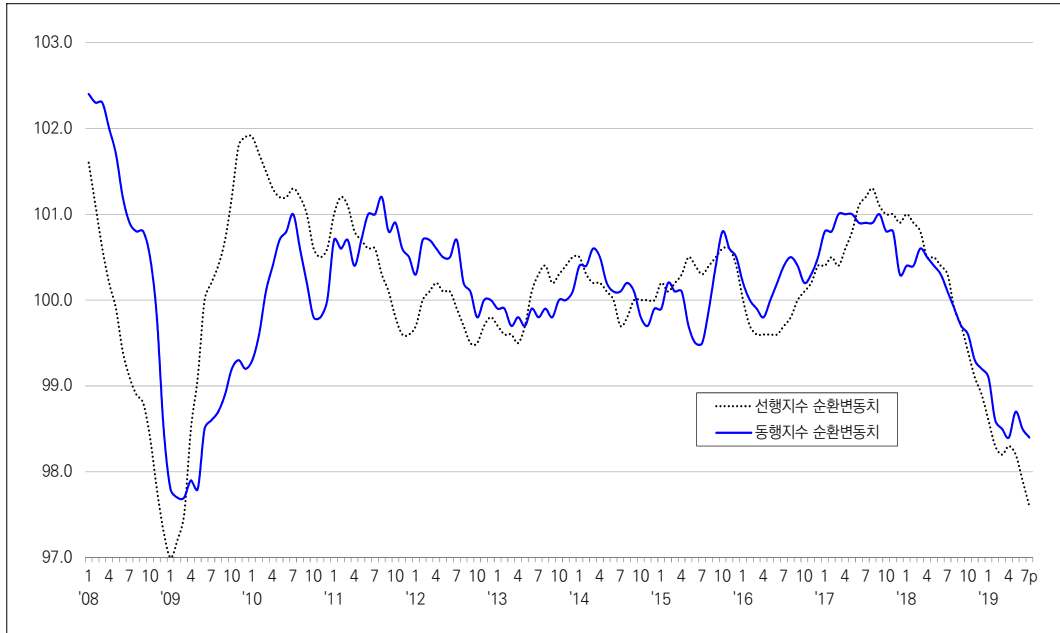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8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52천 명 증가, 실업자는 275천 명 감소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28,21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77천 명(0.6%) 증가함.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52천 명 증가한 27,358천 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7천 명 증가하고, 남성 취업자는 195천 명 증가함.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5천 명 감소한 858천 명으로,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1.0%p 하락한 3.0%를 기록함. 남성 실업자(514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60천 명, 여성 실업자(343천 명)는 115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남성이 3.2%(1.0%p 하락), 여성은 2.8%(1.0%p 하락)임.
- 2019년 8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63.3%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고, 남성(73.4%)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함.
- 2019년 8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한 61.4%임.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71.0%,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52.1%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67.0%(0.5%p 상승)로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0.2%p 상승한 75.9%이고, 여성은 0.9%p 상승한 58.0%임.
- 2019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8천 명 증가한 16,330천 명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과 '수강'은 전년동월대비 150천 명 감소하고, '육아'와 '가사'는 153천 명 감소함. '취업준비'가 전년동월대비 74천 명 증가하고, '쉬었음'이 34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7월 208천 명 증가)(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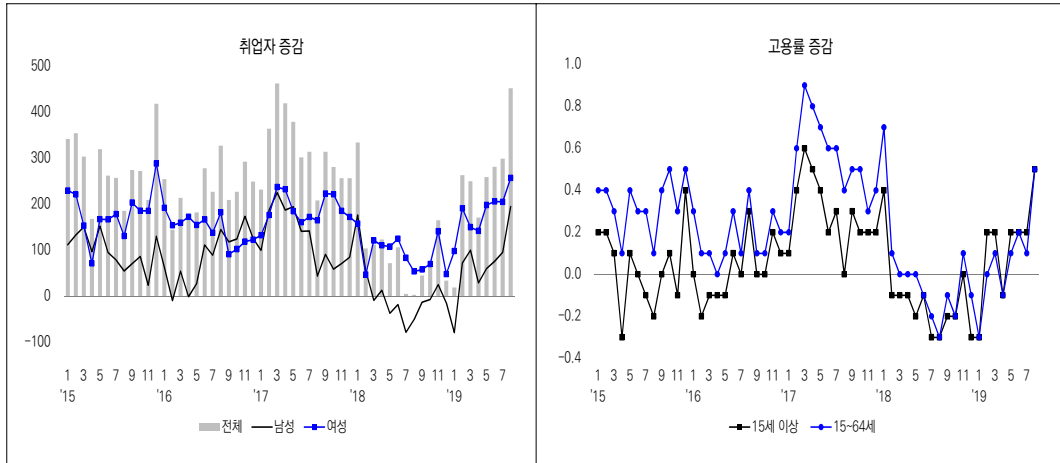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8월	8월	6월	7월	8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606	43,931	44,182	43,967	44,211	44,495	44,530	44,546
	(증가수)	(366)	(325)	(252)	(316)	(244)	(335)	(343)	(335)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895	27,903	28,039	28,545	28,480	28,216
	(증가수)	(265)	(329)	(148)	(214)	(136)	(384)	(358)	(177)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6,904	26,907	27,408	27,383	27,358
	(증가율)	( 0.9)	( 1.2)	( 0.4)	( 0.8)	( 0.0)	( 1.0)	( 1.1)	( 1.7)
	(증가수)	(231)	(316)	( 97)	(208)	( 3)	(281)	(299)	(452)
	(남성)	(85)	(127)	( 4)	( 44)	(-51)	( 76)	( 95)	(195)
	(여성)	(146)	(189)	( 94)	(165)	( 54)	(206)	(205)	(257)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3.5	63.4	64.2	64.0	63.3
	(남성)	(74.0)	(74.1)	(73.7)	(74.2)	(73.9)	(74.2)	(74.0)	(73.4)
	(여성)	(52.2)	(52.7)	(52.9)	(53.1)	(53.3)	(54.4)	(54.2)	(53.6)
	고용률	60.6	60.8	60.7	61.2	60.9	61.6	61.5	61.4
	(남성)	(71.2)	(71.2)	(70.8)	(71.4)	(70.8)	(71.1)	(71.1)	(71.0)
(여성)	(50.3)	(50.8)	(50.9)	(51.3)	(51.3)	(52.4)	(52.2)	(52.1)	
실업자	1,009	1,023	1,073	999	1,133	1,137	1,097	858	
실업률	3.7	3.7	3.8	3.6	4.0	4.0	3.9	3.0	
(남성)	( 3.8)	( 3.8)	( 3.9)	( 3.8)	( 4.2)	( 4.2)	( 3.9)	( 3.2)	
(여성)	( 3.6)	( 3.5)	( 3.7)	( 3.3)	( 3.8)	( 3.7)	( 3.7)	( 2.8)	
비경제활동인구	16,187	16,183	16,287	16,064	16,172	15,951	16,050	16,330	
(증가수)	(102)	( -5)	(104)	(102)	(108)	(-50)	(-15)	(158)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39	36,860	36,796	36,857	36,786	36,818	36,814	36,793
	(증가수)	(134)	( 21)	(-63)	( -1)	(-71)	( 31)	( 27)	( 7)
	참가율	68.7	69.2	69.3	(69.4)	(69.4)	(70.1)	(70.0)	(69.3)
	(남성)	(78.9)	(79.3)	(79.1)	(79.4)	(79.2)	(79.3)	(79.2)	(78.5)
	(여성)	(58.3)	(59.0)	(59.4)	(59.2)	(59.6)	(60.7)	(60.6)	(59.8)
	고용률	66.1	66.6	66.6	66.8	66.5	67.2	67.1	67.0
	(남성)	(75.9)	(76.3)	(75.9)	(76.3)	(75.7)	(75.9)	(76.0)	(75.9)
(여성)	(56.1)	(56.9)	(57.2)	(57.1)	(57.1)	(58.3)	(58.2)	(58.0)	
취업자	24,342	24,559	24,511	24,615	24,454	24,731	24,720	24,668	
(증가수)	(149)	(218)	(-48)	(136)	(-161)	( 69)	( 89)	(214)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9. 9), 『2019년 8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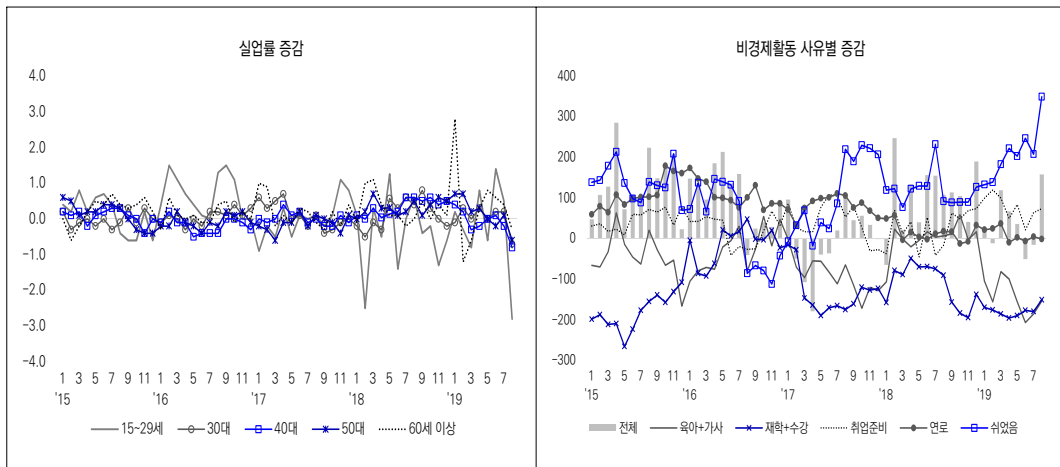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20대 연령층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9년 8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71천 명, 1.9%), 50대(133천 명, 2.1%), 60세 이상(391천 명, 8.7%)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30대(-9천 명, -0.2%), 40대(-127천 명, -1.9%) 연령층은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2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1천 명 증가하는데(7월 28천 명 증가),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60천 명 증가하고,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된 영향임(12천 명 증가, 7월 14천 명 감소).
- 30대 초반 연령층은 전년동월대비 26천 명 증가하고 30대 후반 연령층은 35천 명 감소하여 30대 연령층은 취업자 감소를 이어감(전년동월대비 9천 명 감소).
- 4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7천 명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고(7월 179천 명 감소), 50대와 60대 연령층 취업자는 각각 133천 명, 391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를 지속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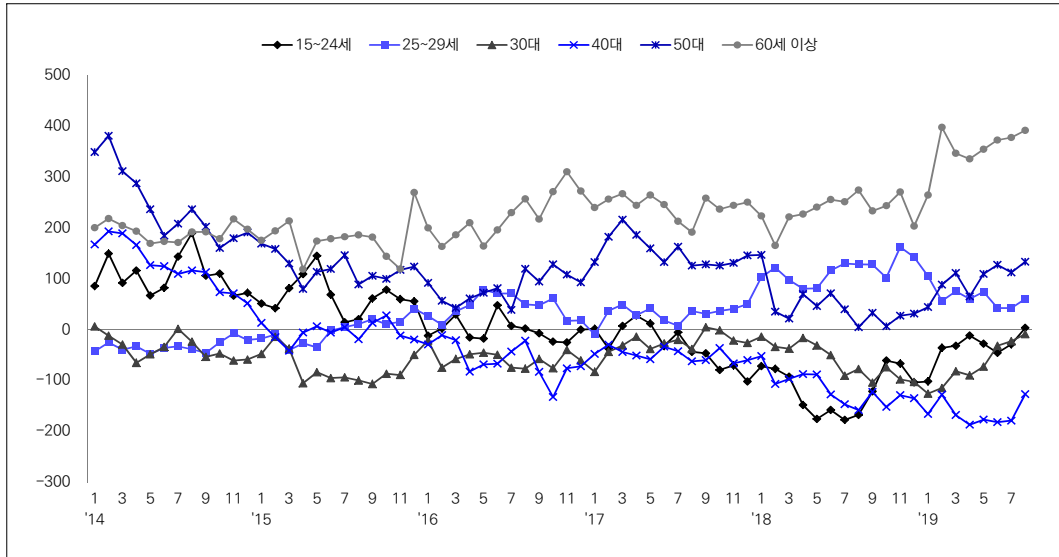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904 (208)	26,907 ( 3)	27,408 (281)	27,383 (299)	27,358 (452)
15~19세	244 ( -1)	247 ( 3)	205 (-42)	255 (-22)	211 (-44)	191 (-18)	209 (-15)	202 ( -9)
20~29세	3,664 ( 44)	3,660 ( -3)	3,699 ( 39)	3,706 ( 15)	3,710 ( 4)	3,729 ( 14)	3,787 ( 28)	3,781 ( 71)
20~24세	1,402 ( 0)	1,368 (-34)	1,292 (-77)	1,404 (-21)	1,281 (-124)	1,258 (-28)	1,306 (-14)	1,293 ( 12)
25~29세	2,262 ( 44)	2,292 ( 30)	2,408 (116)	2,301 ( 36)	2,429 (128)	2,471 ( 42)	2,482 ( 42)	2,489 ( 60)
30~39세	5,672 (-57)	5,643 (-29)	5,582 (-61)	5,605 (-38)	5,527 (-78)	5,576 (-32)	5,540 (-23)	5,518 ( -9)
30~34세	2,732 (-156)	2,593 (-139)	2,512 (-81)	2,559 (-142)	2,483 (-76)	2,517 ( -4)	2,513 ( 24)	2,509 ( 26)
35~39세	2,940 ( 98)	3,050 (110)	3,070 ( 20)	3,046 (104)	3,044 ( -1)	3,058 (-28)	3,028 (-47)	3,009 (-35)
40~49세	6,832 (-59)	6,783 (-50)	6,666 (-117)	6,789 (-63)	6,631 (-158)	6,513 (-182)	6,492 (-179)	6,504 (-127)
50~59세	6,150 ( 82)	6,302 (152)	6,346 ( 44)	6,315 (126)	6,320 ( 5)	6,517 (127)	6,481 (112)	6,453 (133)
60세 이상	3,848 (223)	4,090 (242)	4,324 (234)	4,235 (191)	4,509 (274)	4,883 (372)	4,873 (377)	4,901 (391)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9), 『2019년 8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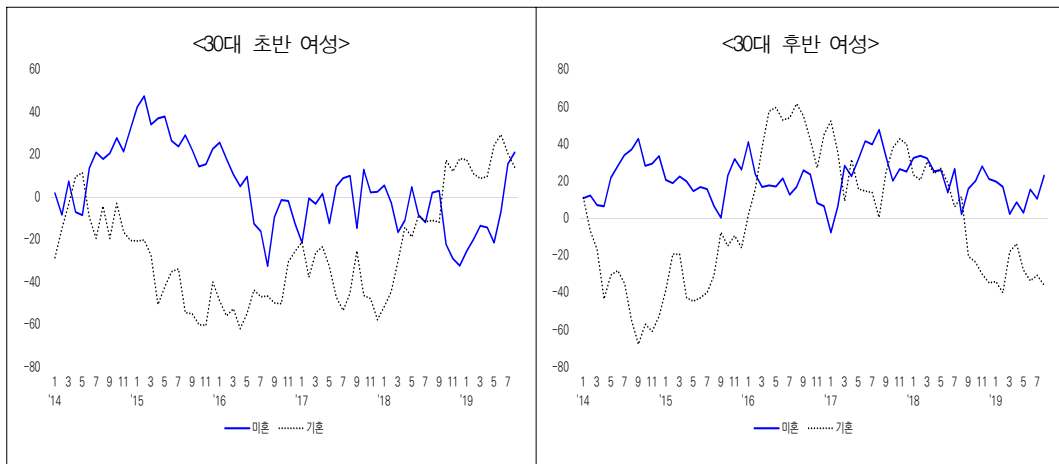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493천 명 증가, 일용직은 24천 명 증가

- 2019년 8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0,559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514천 명(2.6%)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6,799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62천 명(-0.9%) 감소함.

-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93천 명 증가하고, 일용직도 증가로 전환(24천 명 증가, 7월 3천 명 감소). 임시직은 지난해 기저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2천 명 감소, 7월 87천 명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2천 명 감소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97천 명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116천 명, 43천 명 감소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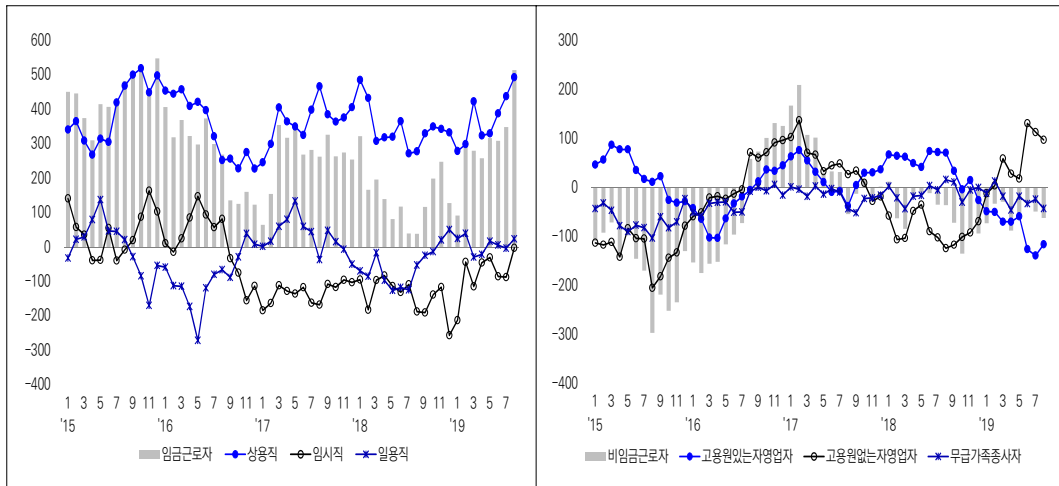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904 (208)	26,907 ( 3)	27,408 (281)	27,383 (299)	27,358 (452)
비임금근로자	6,740 (-36)	6,791 ( 51)	6,739 (-52)	6,898 (-55)	6,862 (-36)	6,853 (-28)	6,821 (-49)	6,799 (-6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4 (-25)	1,608 ( 24)	1,651 ( 43)	1,580 (-38)	1,651 ( 71)	1,536 (-126)	1,520 (-139)	1,535 (-1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30 ( 17)	4,074 ( 44)	3,987 (-87)	4,153 ( 27)	4,030 (-124)	4,170 (131)	4,155 (113)	4,127 ( 97)
무급가족종사자	1,126 (-27)	1,110 (-17)	1,101 ( -9)	1,165 (-43)	1,181 ( 16)	1,147 (-33)	1,146 (-24)	1,138 (-43)
임금근로자	19,669 (267)	19,934 (265)	20,084 (150)	20,006 (263)	20,045 ( 39)	20,555 (309)	20,562 (349)	20,559 (514)
상용근로자	13,062 (346)	13,428 (366)	13,772 (345)	13,517 (467)	13,795 (278)	14,161 (388)	14,181 (438)	14,288 (493)
임시근로자	5,124 ( 10)	4,992 (-132)	4,851 (-141)	5,046 (-167)	4,859 (-187)	4,913 (-85)	4,918 (-87)	4,857 ( -2)
일용근로자	1,483 (-88)	1,514 ( 31)	1,460 (-54)	1,443 (-37)	1,391 (-52)	1,481 ( 6)	1,463 ( -3)	1,415 ( 24)
1~17시간	1,267 ( 50)	1,362 ( 95)	1,520 (158)	1,576 ( 56)	1,830 (254)	1,813 (209)	1,853 (281)	2,096 (266)
18~35시간	3,220 (432)	3,051 (-169)	3,690 (639)	6,831 (-165)	7,945 (1,114)	3,114 (-4,307)	3,312 (223)	7,861 (-84)
36시간 이상	21,509 (-257)	21,930 (421)	21,209 (-720)	17,879 (378)	16,513 (-1,366)	22,112 (4,341)	21,772 (-250)	16,697 (184)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0	42.8	41.5	39.7	38.4	41.2	40.8	37.8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9), 『2019년 8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견고한 증가세 지속

-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큰 규모로 취업자 증가를 이어가고,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 2019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4천 명 증가하고(7월 146천 명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도 104천 명 증가함.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83천 명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천 명 증가),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44천 명 증가)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제조업 취업자는 2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되고(7월 94천 명 감소), 도매 및 소매업(53천 명 감소), 공공행정(52천 명 감소), 금융보험업(45천 명 감소)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감.
  -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고(19천 명 감소, 7월 21천 명 증가),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22천 명 증가함.
- 단시간 근로자(1~36시간 미만)가 8월 182천 명 증가한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1~15시간 미만)는 244천 명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61천 명 증가, 7월 29천 명 증가), 교육서비스업(34천 명 증가, 7월 6천 명 증가), 제조업(28천 명, 7월 12천 명 증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36천 명 증가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8월	8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904 (208)	26,907 ( 3)	27,408 (281)	27,383 (299)	27,358 (452)
농림어업	1,273 (-65)	1,279 ( 6)	1,340 ( 62)	1,415 ( 16)	1,484 ( 69)	1,520 ( 23)	1,523 ( 55)	1,539 ( 55)
광업	19 ( 5)	23 ( 4)	19 (-4)	24 ( 5)	18 (-6)	14 (-6)	14 (-4)	13 (-4)
제조업	4,584 (-21)	4,566 (-18)	4,510 (-56)	4,544 ( 25)	4,439 (-105)	4,416 (-66)	4,390 (-94)	4,415 (-24)
전기·가스·증기	76 (-3)	72 (-4)	70 (-2)	68 (-7)	72 ( 5)	69 (-3)	69 (-7)	72 (-1)
수도·원료재생	113 ( 8)	115 ( 2)	127 ( 12)	112 (-5)	132 ( 20)	135 ( 12)	135 ( 10)	139 ( 7)
건설업	1,869 ( 15)	1,988 (119)	2,034 ( 47)	1,953 ( 37)	2,006 ( 53)	2,056 ( 22)	2,052 ( 12)	2,031 ( 25)
도매 및 소매업	3,754 (-63)	3,795 ( 41)	3,723 (-72)	3,808 ( 24)	3,685 (-123)	3,681 (-40)	3,657 (-86)	3,632 (-53)
운수 및 창고업	1,426 (-2)	1,405 (-22)	1,407 ( 2)	1,395 (-15)	1,397 ( 2)	1,429 ( 47)	1,418 ( 30)	1,417 ( 20)
숙박 및 음식점업	2,291 ( 96)	2,288 (-3)	2,243 (-45)	2,306 (-49)	2,228 (-79)	2,334 ( 66)	2,377 (101)	2,332 (104)
정보통신업	784 ( 10)	783 (-1)	837 ( 55)	794 (-6)	866 ( 72)	869 ( 40)	858 ( 21)	847 (-19)
금융 및 보험업	803 ( 4)	794 (-9)	840 ( 46)	797 (-12)	843 ( 47)	799 (-51)	796 (-56)	798 (-45)
부동산업	483 ( 21)	540 ( 57)	528 (-12)	545 ( 55)	536 (-9)	566 ( 40)	565 ( 30)	570 ( 3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01 ( 47)	1,092 (-9)	1,096 ( 4)	1,068 (-31)	1,101 ( 33)	1,140 ( 23)	1,144 ( 44)	1,161 ( 60)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91 ( 60)	1,374 (-17)	1,311 (-63)	1,404 ( 7)	1,287 (-117)	1,313 (-30)	1,296 ( 1)	1,330 ( 4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04 ( 55)	1,058 ( 55)	1,110 ( 52)	1,103 ( 78)	1,131 ( 29)	1,092 (-75)	1,082 (-63)	1,079 (-52)
교육서비스업	1,862 ( 27)	1,907 ( 45)	1,847 (-60)	1,896 ( 33)	1,860 (-36)	1,918 ( 74)	1,920 ( 63)	1,883 ( 2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861 ( 80)	1,921 ( 61)	2,046 (125)	1,941 ( 45)	2,086 (144)	2,223 (125)	2,238 (146)	2,259 (174)
예술·스포츠·여가	407 (-21)	428 ( 22)	445 ( 16)	428 ( 26)	442 ( 14)	483 ( 58)	508 ( 65)	525 ( 83)
협회·단체·수리·기타	1,224 (-8)	1,222 (-3)	1,236 ( 14)	1,230 (-14)	1,239 ( 9)	1,267 (-7)	1,240 (-13)	1,219 (-21)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70 (-13)	64 (-5)	48 (-17)	60 (-3)	47 (-14)	72 ( 23)	87 ( 40)	86 ( 39)
국제 및 외국기관	16 (-2)	12 (-5)	7 (-5)	14 (-3)	9 (-5)	12 ( 6)	14 ( 7)	1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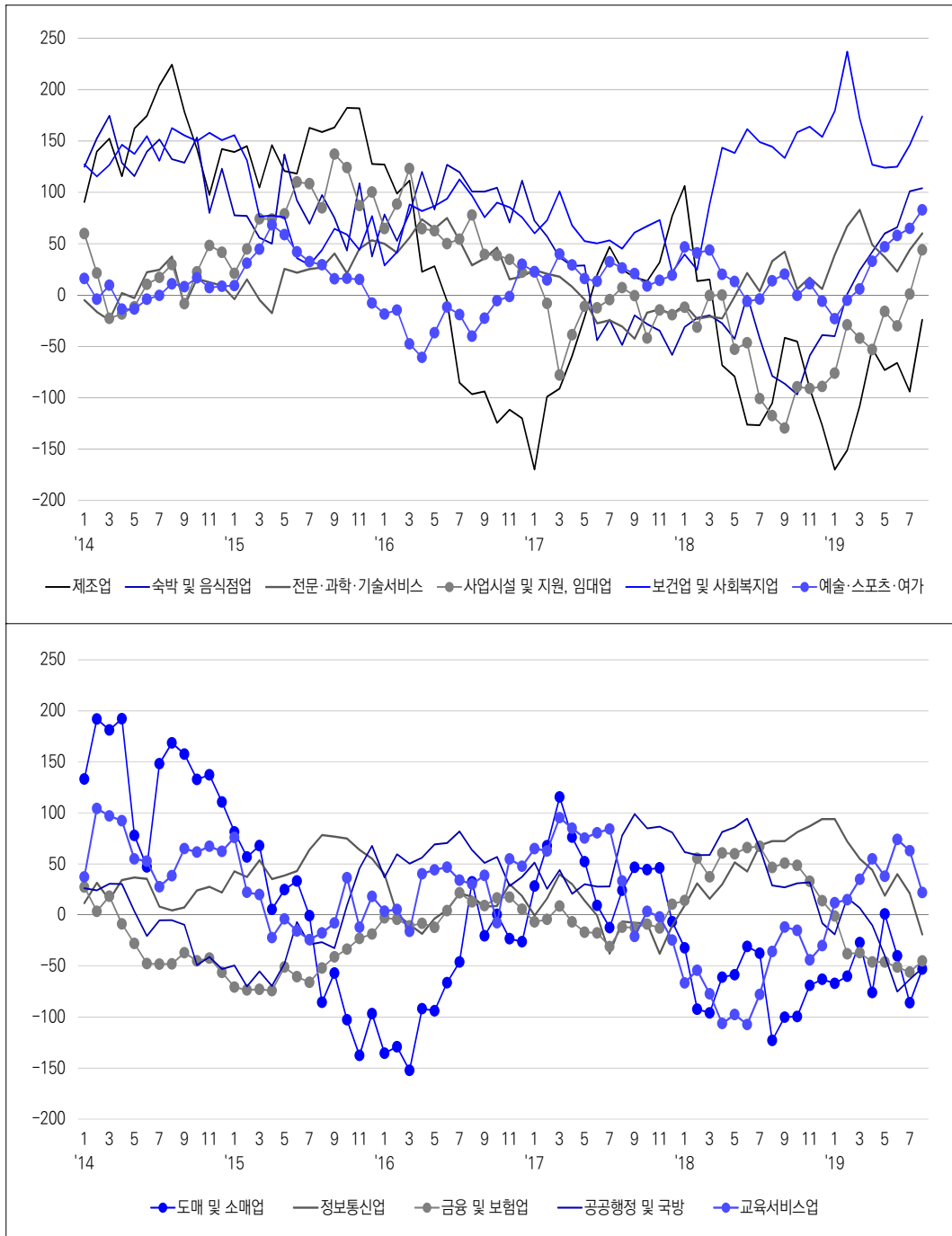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9. 9), 『2019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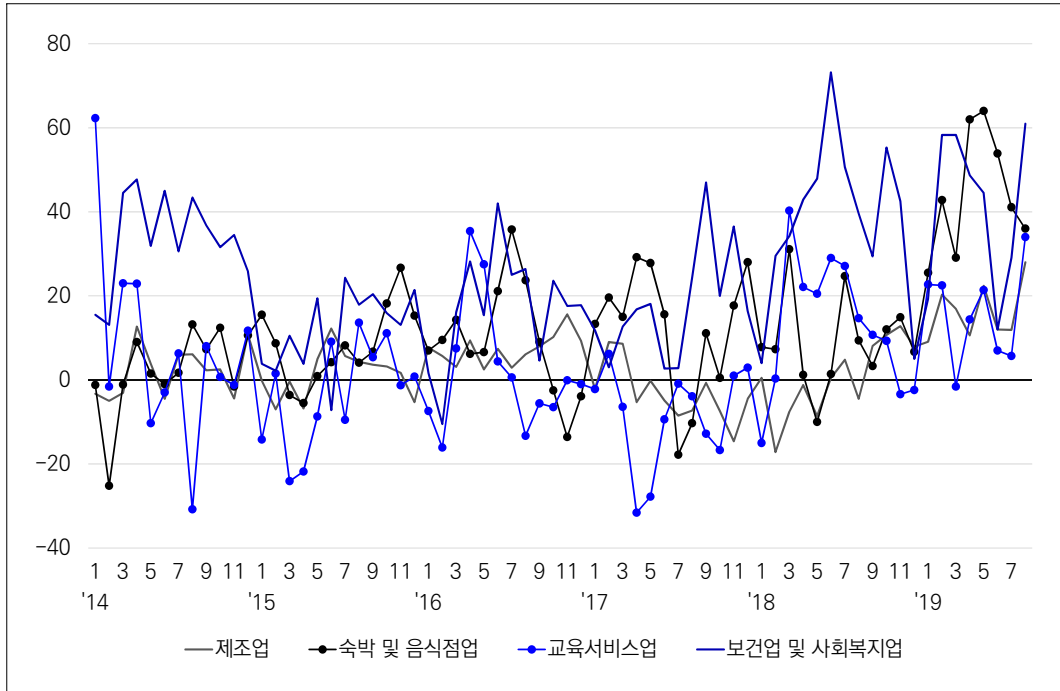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산업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감 추이(일시휴직 제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9년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2019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29천 원(3.3% ↑)임.
  - － 2019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한 3,531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한 1,527천 원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9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폭은 0%임.
  - － 명목임금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동일 수준인 가운데 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임금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임.

### ◆ 2019년 1~6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3%, 2.7% 상승함

- 2019년 1~6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47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3%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에 그침.
  -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6.2% 상승한 1,496천 원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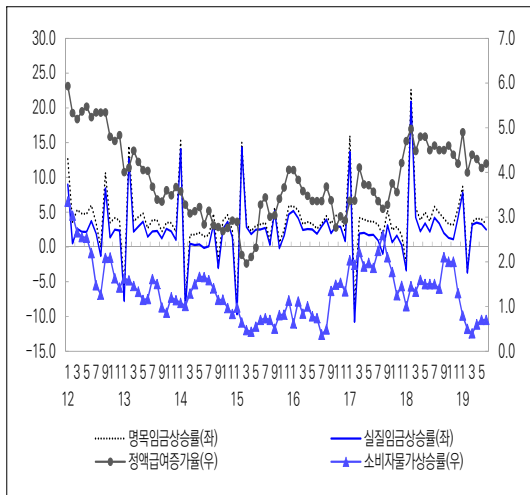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8		2019		
				1~6월	6월	1~6월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06 ( 3.8)	3,207 ( 3.3)	3,376 ( 5.3)	3,363 ( 6.1)	3,224 ( 3.7)	3,476 ( 3.3)	3,329 ( 3.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331 ( 4.0)	3,418 ( 2.6)	3,592 ( 5.1)	3,576 ( 5.9)	3,426 ( 3.4)	3,531 ( 3.1)	
	정액급여	2,668 ( 3.4)	2,764 ( 3.6)	2,891 ( 4.6)	2,872 ( 4.7)	2,879 ( 4.5)	2,998 ( 4.2)	
	초과급여	189 ( 4.2)	190 ( 0.6)	197 ( 3.7)	195 ( 2.1)	210 ( 7.6)	202 ( 3.6)	210 ( 0.2)
	특별급여	475 ( 7.2)	464 (-2.2)	504 ( 8.5)	508 (14.5)	337 (-7.3)	489 (-3.9)	320 (-5.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88 ( 0.6)	1,353 ( 5.1)	1,428 ( 5.5)	1,409 ( 5.7)	1,439 ( 5.5)	1,496 ( 6.2)	1,527 ( 6.1)	
소비자물가지수	101.6 ( 1.0)	103.0 ( 1.9)	104.5 ( 1.5)	104.1 ( 1.3)	104.1 ( 1.5)	104.9 ( 0.6)	104.9 ( 0.7)	
실질임금증가율	2.8	1.3	3.7	4.8	2.2	2.7	0.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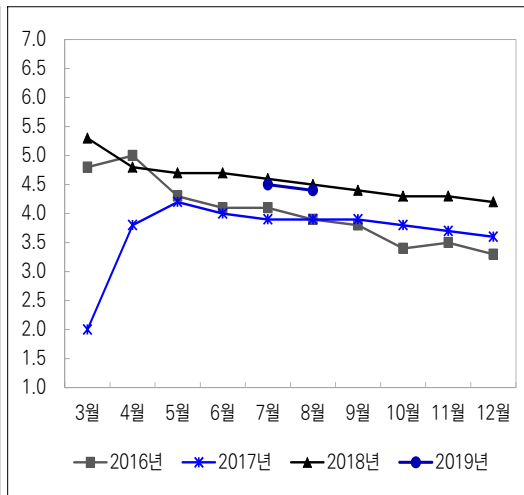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9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 4.4%

○ 2019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4%로 전년동월 인상률(4.5%)보다 0.1%p 하락함.

◆ 2019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둔화

○ 2019년 6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각각 3.7%, 1.3%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848천 원,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4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모두 둔화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8		2019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소 계	2,886 ( 4.6)	3,019 ( 4.6)	2,983 ( 4.8)	2,936 ( 4.5)	3,109 ( 4.2)	3,044 ( 3.7)
	상용임금총액	3,082 ( 4.0)	3,217 (11.5)	3,175 ( 4.6)	3,123 ( 4.2)	3,305 ( 4.1)	3,234 ( 3.5)
	정액급여	2,602 ( 4.3)	2,723 ( 4.7)	2,706 ( 4.7)	2,718 ( 4.7)	2,828 ( 4.5)	2,838 ( 4.4)
	초과급여	164 ( 2.5)	172 ( 4.8)	169 ( 3.1)	181 ( 8.9)	175 ( 3.3)	181 ( 0.1)
	특별급여	316 ( 2.0)	322 ( 1.9)	300 ( 4.3)	224 ( -4.1)	302 ( 0.7)	215 (-4.2)
	비상용임금총액	1,350 ( 5.0)	1,422 ( 5.3)	1,403 ( 5.5)	1,445 ( 5.6)	1,489 ( 6.1)	1,527 ( 5.7)
대규모	소 계	4,983 ( 0.5)	5,305 ( 6.5)	5,439 ( 9.6)	4,784 ( 0.0)	5,430 (-0.2)	4,848 ( 1.3)
	상용임금총액	5,145 ( 0.3)	5,474 ( 6.4)	5,610 ( 9.5)	4,953 ( -0.3)	5,587 (-0.4)	5,002 ( 1.0)
	정액급여	3,598 ( 2.3)	3,735 ( 3.8)	3,722 ( 4.7)	3,694 ( 3.2)	3,839 ( 3.2)	3,808 ( 3.1)
	초과급여	324 (-2.1)	324 ( 0.0)	323 (-0.7)	355 ( 2.6)	334 ( 3.4)	354 (-0.3)
	특별급여	1,223 (-4.5)	1,415 (15.7)	1,565 (25.9)	905 (-13.1)	1,413 (-9.7)	840 (-7.1)
	비상용임금총액	1,400 ( 6.9)	1,509 ( 7.8)	1,493 ( 8.9)	1,365 ( 3.5)	1,596 ( 6.9)	1,526 (11.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6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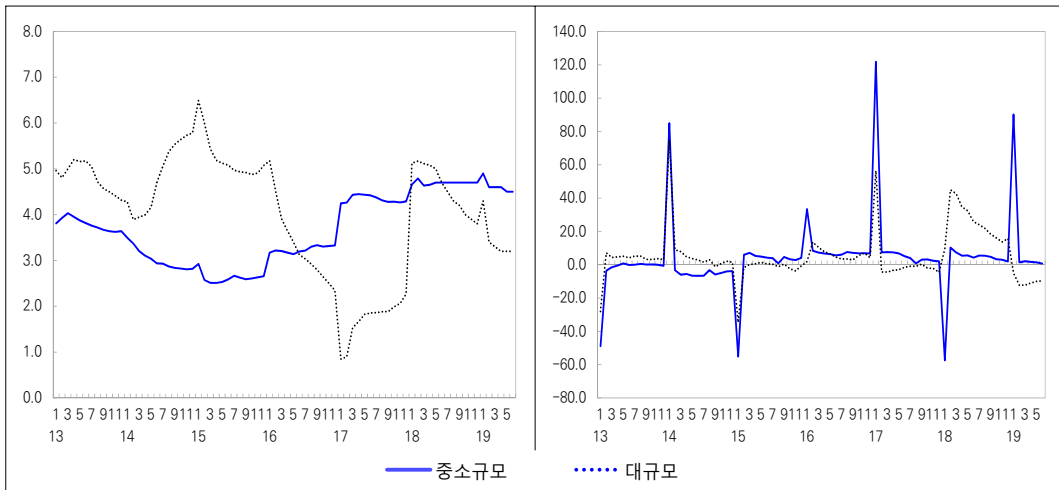
○ 2019년 1~6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4.2%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는 0.2%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감소는 상용직 근로자 특별급여 감소와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

승폭 둔화에서 비롯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8년 1분기에 지급된 임금협상 타결금(자동차 관련 산업의 2017년도분과 조선업 관련 산업의 2016~2017년 2개년분), 일부 산업의 비정기적 성과급(1차 금속제조업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과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임.
- 여기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임금총액도 전년동평균대비 6.9% 상승에 그쳐 상승폭이 둔화(2018년 동기간 10.7%)되었음. 반면 중소기업사업체 비상용임금총액은 6.1%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년동평균대비 확대됨.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6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2019년 6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0%)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6.9%), 부동산업 및 임대업(6.1%) 순으로 상승함.
- 반면 제조업은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저조한 1.8% 상승에 그쳤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도 1%대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함.
- 6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070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6%대의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866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8		2019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3,207 ( 3.3)	3,376 (5.3)	3,363 (6.1)	3,224 ( 3.7)	3,476 (3.3)	3,329 (3.3)
광업	3,713 ( 1.0)	3,835 (3.3)	3,733 (1.7)	3,745 (-5.0)	3,857 (3.3)	3,884 (3.7)
제조업	3,690 ( 2.4)	3,930 (6.5)	3,948 (7.8)	3,632 ( 1.7)	4,042 (2.4)	3,698 (1.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281 (-0.3)	6,436 (2.5)	6,175 (2.2)	7,938 ( 0.1)	6,280 (1.7)	8,070 (1.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3,089 ( 3.7)	3,288 (6.5)	3,173 (5.6)	3,238 ( 8.3)	3,397 (7.1)	3,376 (4.3)
건설업	2,624 ( 4.7)	2,784 (6.1)	2,755 (5.7)	2,778 ( 7.4)	2,929 (6.3)	2,940 (5.8)
도매 및 소매업	3,049 ( 5.8)	3,214 (5.4)	3,173 (5.4)	3,072 ( 4.2)	3,334 (5.1)	3,196 (4.0)
운수업	3,156 ( 4.4)	3,357 (6.4)	3,278 (7.3)	3,310 ( 5.6)	3,373 (2.9)	3,412 (3.1)
숙박 및 음식점업	1,626 ( 3.6)	1,757 (8.1)	1,746 (8.3)	1,745 ( 8.6)	1,871 (7.2)	1,866 (6.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122 ( 3.6)	4,277 (3.8)	4,292 (4.7)	4,092 ( 3.6)	4,510 (5.1)	4,281 (4.6)
금융 및 보험업	5,706 ( 3.8)	6,026 (5.6)	6,115 (8.0)	5,241 ( 4.5)	6,368 (4.1)	5,445 (3.9)
부동산 및 임대업	2,446 ( 2.7)	2,600 (6.3)	2,555 (6.3)	2,536 ( 7.8)	2,698 (5.6)	2,692 (6.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92 ( 1.1)	4,757 (5.9)	4,694 (6.2)	4,610 ( 6.2)	4,784 (1.9)	4,681 (1.6)
사업서비스업	2,088 ( 1.9)	2,203 (5.5)	2,188 (6.1)	2,178 ( 4.9)	2,316 (5.9)	2,305 (5.9)
교육서비스업	3,316 ( 2.6)	3,397 (2.5)	3,403 (3.1)	3,216 ( 3.0)	3,477 (2.2)	3,328 (3.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71 ( 3.7)	2,799 (4.8)	2,762 (5.0)	2,736 ( 5.1)	2,926 (5.9)	2,907 (6.3)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 6.8)	2,684 (6.8)	2,603 (7.1)	2,554 ( 6.0)	2,742 (5.3)	2,732 (7.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40 ( 3.4)	2,401 (7.2)	2,364 (7.2)	2,383 ( 6.6)	2,480 (4.9)	2,496 (4.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6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9년 1~6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2%)이었으며, 다음으로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7.2%)으로 나타남.

-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9%)은 1%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2.4%로 전년동평균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 1~6월 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6,368천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71천 원)이었음.

◆ 2019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5.4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19.0일로 전년동월대비 0.2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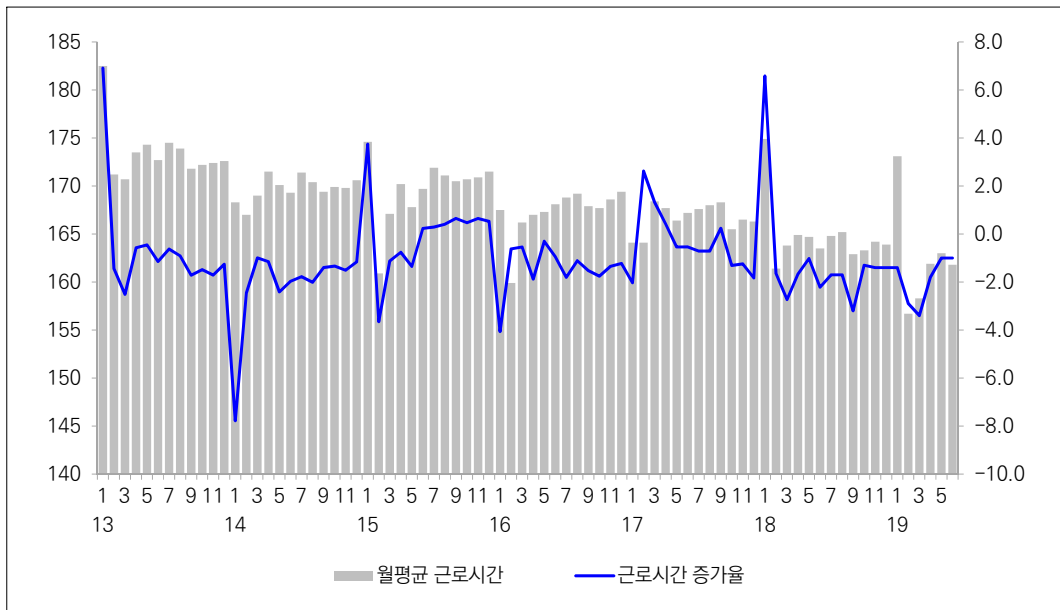
○ 2019년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시간 감소한 155.4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7시간 감소한 162.3시간,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2시간 감소한 93.9시간임. 비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1~6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19.8일로 전년동평균대비 0.1일 감소)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6월 중소기업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기업체는 증가

- 2019년 6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시간 감소한 반면, 대규모 기업체는 156.1시간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1시간 증가함.
  - 한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은 21.1시간으로 2.3시간 감소함.
  - 특히 300인 이상 산업중분류 중에서 전년동월대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업종 대부분은 제조업이었으며, 제조업 중 상위 5개 업종(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초과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함.
- 2019년 1~6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은 16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1시간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기업체는 전년동월과 같은 162.6시간임.
  - 대규모 기업체의 비상용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8시간이 증가한 95.8시간으로 중소기업의 비상용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임.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8		2019	
				1~6월	6월	1~6월	6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6 (-1.9)	164.1 (-1.5)	163.7 (-2.3)	158.3 (-7.5)	161.6 (-1.3)	155.3 (-1.9)
	상용 총근로시간	174.4 (-2.2)	172.1 (-1.3)	171.4 (-2.2)	166.0 (-7.5)	169.6 (-1.1)	162.8 (-1.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4.7 (-2.1)	163 (-1.0)	162.4 (-1.9)	156.3 (-7.8)	160.9 (-0.9)	154.0 (-1.5)
	상용 초과근로시간	9.7 (-4.0)	9.1 (-6.2)	9.1 (-7.1)	9.7 (-2.0)	8.7 (-4.4)	8.9 (-8.2)
	비상용근로시간	105.7 (-2.7)	99.2 (-6.1)	100.4 (-5.6)	97.6 (-9.2)	95.4 (-5.0)	94.5 (-3.2)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4 (-1.5)	163.3 (-0.7)	162.6 (-1.8)	156.0 (-7.6)	162.6 ( 0.0)	156.1 ( 0.1)
	상용 총근로시간	167.7 (-1.8)	166.6 (-0.7)	165.8 (-1.8)	159.9 (-7.8)	165.3 (-0.3)	159.4 (-0.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5.4 (-1.0)	154.9 (-0.3)	154.2 (-1.3)	147.1 (-8.2)	153.8 (-0.3)	147.5 ( 0.3)
	상용 초과근로시간	12.3 (-10.2)	11.7 (-4.9)	11.7 (-6.4)	12.8 (-2.3)	11.5 (-1.7)	11.9 (-7.0)
	비상용근로시간	90.3 ( 5.6)	89.2 (-1.2)	87.8 (-3.5)	76.9 (-6.9)	95.8 ( 9.1)	85.5 (11.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19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광업(-4.4%)이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2.7%), 협회 및 단체(-2.6%) 순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한 169.0시간임.
  - 2019년 6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72.2시간)이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1.1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8		2019	
			1~6월	6월	1~6월	6월
전 산업	166.3(-1.8)	163.9(-1.4)	158.0(-7.5)	163.5(-2.2)	161.8(-1.0)	155.4(-1.6)
광업	175.8(-1.2)	176.6( 0.5)	177.2(-2.5)	175.9(-0.8)	174.6(-0.7)	169.4(-4.4)
제조업	179.8(-1.8)	177.1(-1.5)	172.7(-7.2)	177.1(-2.4)	175.1(-1.1)	169.0(-2.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4.9(-1.7)	162.1(-1.7)	158.5(-9.1)	161.4(-2.9)	159.0(-1.5)	159.8( 0.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 0.0)	177.8( 0.4)	174.9(-4.6)	176.2(-0.8)	177.0( 0.5)	172.2(-1.5)
건설업	141.9(-0.1)	138.5(-2.4)	133.7(-9.5)	138.7(-3.5)	135.8(-2.1)	131.1(-1.9)
도매 및 소매업	167.6(-1.5)	165.2(-1.4)	158.8(-7.3)	164.5(-2.3)	163.6(-0.5)	157.1(-1.1)
운수업	169.2(-2.1)	166.5(-1.6)	161.2(-6.3)	165.8(-2.2)	162.8(-1.8)	157.6(-2.2)
숙박 및 음식점업	160.4(-3.2)	159.7(-0.4)	158.0(-2.5)	158.9(-0.6)	158.0(-0.6)	155.1(-1.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0.9(-1.2)	161.6( 0.4)	151.9(-8.3)	160.2(-0.9)	162.0( 1.1)	153.4( 1.0)
금융 및 보험업	160.5(-1.5)	160.9( 0.2)	151.1(-9.0)	160.3(-0.9)	159.7(-0.4)	150.6(-0.3)
부동산 및 임대업	184.9(-2.2)	178.9(-3.2)	173.4(-8.1)	178.7(-3.6)	174.8(-2.2)	168.8(-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1(-1.7)	160.4( 0.2)	151.9(-8.4)	159.7(-1.1)	159.3(-0.3)	150.6(-0.9)
사업서비스업	165.1(-3.0)	163.2(-1.2)	156.3(-6.7)	162.2(-1.7)	160.4(-1.1)	154.2(-1.3)
교육서비스업	144.4(-2.1)	142.3(-1.5)	132.7(-9.7)	140.9(-2.7)	140.7(-0.1)	132.7( 0.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4.5(-2.2)	162.5(-1.2)	155.5(-7.9)	161.9(-1.9)	160.3(-1.0)	152.8(-1.7)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5(-0.4)	157.7(-1.1)	152.7(-7.4)	156.9(-0.9)	154.3(-1.7)	149.1(-2.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4.2(-2.0)	162.0(-1.3)	157.3(-6.0)	161.5(-1.7)	158.8(-1.7)	153.2(-2.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 2019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이면서 건설업(135.8시간)이었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177.0시간)이었음.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9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58건
  -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 건수(706건)보다 152건 많은 수치임.
- 2019년 8월 조정성립률 47.7%
  - 8월 조정성립률은 전년동월 45.2%에 비해 2.5%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8년, 2019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9. 8	858	777	325	121	204	357	21	336	21	74	76	47.7
2018. 8	706	611	252	113	139	306	16	290	9	44	95	45.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2019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2,059건
  - 8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10,130건)보다 1,929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3.4%(1,29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6%(8,400건)를 차지함.

〈표 2〉 2018년, 2019년 8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8	12,059	9,699	1,177	122	1,748	566	3,442	2,644	2,397
2018. 8	10,130	8,331	962	148	1,375	587	2,774	2,485	1,79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19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836건
  -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428건)보다 408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0.3%(23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9.7%(542건)를 차지함.

〈표 3〉 2018년, 2019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8	836	778	216	20	85	88	369	0	59
2018. 8	428	394	187	7	59	23	118	0	3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김용균의 사인, ‘위험의 외주화’가 맞다

- 태안화력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 4개월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특조위는 2018년 12월 10일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고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를 지목하였음.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인 발전사 소속 노동자보다 작업 중 최대 8.9배 더 많은 사고와 중독 위험에 노출되었고 원·하청 여부와 산재 횟수의 상관관계는 0.75로 나타났음.
  - 또한 특조위가 노동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실지급 인건비를 역산한 결과, 하청 노동자는 직접 노무비의 47~61%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조위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낮추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사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불가피하다고 권고하였음.
-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 발표
  - 권고. 구조/고용/인권 분야
    1.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4.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5.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6.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7. 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 외주화 철회
  8.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 권고. 안전/보건/기술 분야
9.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10.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축과 의료체계 확립
  11. 안전보건 조직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
  12.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의 설립
  13.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14. 석탄 취급 관련 설비의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15.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개선
  16.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17.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 권고. 법 제도 분야
18.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19.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22.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 ◆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최종 타결 ... 임금 2% 인상

- 저임금직군 및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도 개선키로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8월 30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어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노사는 올해 임금을 2% 하기로 했고,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2018년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융 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음.
  - 이 밖에도 금융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적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

년제도 개선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도 합의하였음.

◆ 서울대병원 노사,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 합의

-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
  - 서울대병원 노사는 9월 3일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614명을 전원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음.
  - 전환 대상은 총 614명으로 해당직종은 소아급식, 경비, 운전, 사무보조, 환경미화,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이고, 이들 노동자는 11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하청노동자 2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받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고 복리후생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게 될 예정임.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 노동부 근기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분석 발표... 폭언(40.1%)·부당지시(28.2%)·따돌림(11.9%) 순
  - 8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379건이었고,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음.
  -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9건(42.0%)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102건(26.9%), 50~99인 67건(17.7%), 100~299인 51건(13.4%) 순으로 많았음.
  - 유형별로는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 107건(28.2%), 험담·따돌림 45건(11.9%)이 뒤따랐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85건(22.4%), 사업서비스업 53건(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11.6%) 순이었음.

◆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첫 동시 파업 예고

- KAC공항서비스 노조 92.3% 찬성으로 첫 파업 가결
  -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8월 26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직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조합원 909명 중 877명(96.5%)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92.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였음.
- 노조에 따르면 기존 상여금의 3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고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하는 돈이 KAC공항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청소미화, 전기, 통신, 토목·건축, 전기, 주차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었고 정확한 파업 인원과 일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인력 결정 이후 나올 전망이다.

#### ◆ 조선업 노동자 상경 총파업 ... “대우조선 매각·구조조정 저지”

○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2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와 임담투 승리’ 총파업을 열었음.
- 이날 상경 시위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이 참석하였고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만 6,000여 명이 동참하였음.
- 노조는 집회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소가 합병되면 초대형 조선소가 탄생하는 것이지만 해양플랜트 등 중복사업에서 사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합병 반대의사를 밝혔음.
- 또한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통해 세계 1위 조선소에만 집중하고 중형조선사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실제 STX조선해양의 직원들은 2017년 법정관리가 종결된 이후 향후 5년 동안 6개월씩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임.

#### ◆ 강사법 개정 후 7,834명 교단 떠나

○ 초빙·겸임 전환 빼면 7,834명 강의 못해

- 8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학기(4월 1일 기준)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일반대·전문대·기술대 등)의 강사 수는 4만 6,925명으로 전년 1학기 5만 8,546명 대비 1만 1,621명(19.8%)이 감소하였음.
- 초빙·겸임 등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 강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7,834명이 전업강사로써 강의 기회를 잃었음. 이 중 4,704명이 전업강사로 직장 자체를 잃거나 아예 강단을

떠나 타 업종으로 전업하였음.

- 특히 4,704명 중 인문사회 분야(1,942명)와 예체능분야(1,666명)에 폐강이 집중되었고, 겸임교수는 1년 새 24.1%, 초빙교수는 6.9% 증가해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표 4〉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

(단위 : 명)

	강사 재직 인원			감소인원 중 2019년 1학기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률)
	2018년 1학기	2019년 1학기	증감	전임	초빙	겸임	기타	소계	
총괄	58,546	46,925	-11,621	732	444	1,829	782	3,787	-7,834 (-13.4%)
전업	30,204	23,523	-6,681	412	305	720	540	1,977	-4,704 (-15.6%)
비전업	28,342	23,402	-4,940	320	139	1,109	242	1,810	-3,130 (-11.0%)

자료 : 교육부.

#### ◆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 안전운임위원회, 10월 말 안전운임·운송원가 심의·의결할 예정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월 31일 ‘체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노조 추산 5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화물노동자들은 적정운임료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적용-일몰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였음.
- 안전운임제 도입을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2018년 3월에 통과하였으나 3년만 시행하기로 하였고, 현재 전체 화물차의 10%에 못 미치는 컨테이너·시멘트 트레일러에만 적용키로 해 실효성 논란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화물노동자(화물차주)와 운수업체·화주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꾸렸으나,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전운임위원회는 10월 말 안전운임과 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

#### ◆ 주52시간제 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급증

○ 2019년 인가 2018년보다 31.9% 늘어

-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 16일까지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2018년 한 해 특별연장근

로 인가(204건)보다 31.9% 급증한 수치임.

-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음.
- 여기에 더해 2019년 8월부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였음.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현재 7곳임.

#### ◆ 택배·배달 노동자 ‘처우개선·휴식권 보장’ 공동행동

##### ○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캠페인 사업단 ‘희망더하기’ 출범

- 9월 5일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두 노조는 택배·배달 노동자 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택배·배달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날 출범한 희망더하기는 택배·배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사업에 집중하며, 배달노동 실태조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공동집회를 추진, 11월에는 국회에서 증언대회와 개선안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들은 “택배·배달 노동자 현실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실천을 다짐한다”며 “배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300여 명 직접 고용하라”

##### ○ 6년 만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8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공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였음.

-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음.
-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으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은 향후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상반기 제조·수입 화학물질 셋 중 하나 유해·위험

- 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153종 공표, 53종에서 유해성 확인... 환기시설 설치 포함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통보
  - 고용노동부는 8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153종이고, 이 중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디요오드실란·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음.
  - 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국소배기장치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노동자에게는 보호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였음.

◆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15곳 ‘개선 권고’

- 6곳은 폐쇄·이동 권고...9곳은 냉난방시설 등 개선토록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관악지청)은 8월 27일 서울대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15곳에 대한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9월 3일 밝혔음.
  - 8월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계단 밑 휴게실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숨진 것을 계기로 노조와 학생들은 열악한 휴게실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
  - 서울대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총 150여 곳이고, 관악지청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환경분회가 열악하다고 지목한 휴게실 등 15곳을 점검하였음.
  - 관악지청과 서울대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벌어진 제2공학관 휴게실을 포함해 휴게실 6곳



에는 폐쇄·이동 권고가, 휴게실 9곳에는 냉난방시설·적정 온습도 유지·면적 확대 등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연간 최대 200억 원 지원

##### ○ 일자리위,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 12차 회의를 열어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년간 연간 3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대상은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이고, 지자체가 발굴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일자리 창출·노동환경 개선 같은 사업을 우선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위는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연내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 이와 비슷하게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사업과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창원을 포함한 7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고 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